

민실위 보고서

2012년 6월 11일(월)

<뉴스데스크>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어제 <뉴스데스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열 논란을 단신으로만 전했다. 그 것도 뉴스가 거의 끝날 때쯤이 돼서야 방송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뉴스데스크> 6월 10일 방송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5공 핵심 인사들이 그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두고 '사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 관계자는 육사발전기금 측이 일반인도 참석한 기념행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초청했고, 생도들의 구호에 참관하던 전 전 대통령이 경례로 화답한 게 '사열'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이 어떤 자인가? 자신과 그를 둘러싼 일당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피 묻은 손으로 7년간 독재를 일삼았던 자이다. 종국에는 재판에 넘겨져 내란수괴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자가 아닌가? 이런 자가 육사에 초대됐고, 생도들의 행진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방위를 책임져야 할 육사 생도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는가?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도 한참을 돈 것이다.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나? 리포트로 길게 다뤄도 모자랄 판에 단신으로 다뤘다. 단신도 내용을 뜯어보면 '사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10초만 전하고, '사열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육사 측의 변명은 15초로 훨씬 더 길게 소개했다. 마치 '전두환이 정식으로 사열을 받았으면 문제이지만, 정식으로 사열 받은 것이 아니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전두환과 그 일당이 어떻게 육사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지/ 29만원 밖에 없다는 자가 어떻게 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발전기금을 냈는지/ 왜 육사 교장 옆에서 사열 받는 모양새를 취했는지' 등등 짚어봐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대도 이런 것은 다 눈감아 버리고 '아무튼 오해'라는 식으로 단신 기사를 쓴 것이다. 이는 지난해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19 전화 논란을 '소방관들의 오해'로 치부해 버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어제는 6.29선언을 이끌어내 민주화의 초석을 닦았던 6.10 항쟁 25주년인 날이었다. <뉴스데스크>는 '플라스틱 도매상에서 불

이 나서 가스통이 터졌다, 사우나에 불이 나 손님들이 대피했다' 등의 온갖 자잘한 뉴스는 전하면서도 6.10항쟁과 관련 뉴스는 하나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6.10항쟁 정신을 모독하는 '전두환의 사열 논란' 뉴스는 애써 축소했다. 요즘에 유행하는 식으로 물어보자면, 도대체 김재철 밑에서 보도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황당한 축소 보도는 어제 '대통령 내곡동 사저 수사 결과' 리포트에서도 이어졌다. 이 리포트를 뜯어보자. 앵커멘트를 빼면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수사결과 1분/ 민주당 반박 15초/ 청와대 해명 15초/로 구성돼 있다. 말하자면 '내곡동 사저 문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반박은 '쥐꼬리'만큼이다. 게다가 반박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처럼 처리됐다.

<뉴스데스크> 6월 10일 방송

<VCR>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아들 시형 씨와 김인중 전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작년 10월 민주당이 시형 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격이 오르고 시형 씨 땅은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을 정한 것인 만큼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검찰 조사결과 발표 (1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발표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SYN> 박용진 대변인/민주통합당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 반론 (15초)

청와대는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곡동 부지 중 대통령실 지분은 공매가 진행 중이고, 시형 씨 지분은 규정에 따라 취득 원가로 국가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채 홍입니다.

청와대 반론 (15초)

반면 KBS와 SBS는 민주당의 주장 이외에도 편법 상속/서면조사 등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는 것을 중립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5층의 보도 책임자들이 '즐거 보는' 조.중.동도 사설까지 써 가며 크게 비판했다. 오직 김재철 치하의 MBC만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했다. 지금 <뉴스데스크>를 만드는 책임자들과 기자들은 진정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